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을 통해 살펴본 1920년대 초반 ‘부인’에 대한 시선*

이민주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조교수**

최이숙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강의전담교수***

식민지 시기 젠더와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는 사회사 및 여성사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잡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신문의 여성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란인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을 대상으로, ‘부인과 가정’란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고, 어떤 이슈를 통해 당시의 여성을 규정하려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인과 가정’란이 〈매일신보〉에 처음 등장한 1923년 후반부터 1924년 12월까지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그 유형과 주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부인과 가정’란의 특성과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의 유형은 계몽적인 내용의 설명기사가 가장 많았고, 연애/결혼/가족에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이들 기사는 여성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비판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 것을 주장했지만 여기에서 호명된 여성은 ‘가정’이라는 틀 내에서 가정을 잘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한적 주체를 넘어서지 못했다.

핵심어: 부인란,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 신여성, 식민지 조선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 3065971).

** minju77@hotmail.com, 주저자

*** socio21@gmail.com, 교신저자

1. 서론

1923년 11월 25일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일요일자 신문 3면에 '일요부록'을 도입하였고, 이 '일요부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부인과 가정'란을 배치했다. 이는 신문의 여성란이 고정적으로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1920년대 초·중반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 등장과 해당 지면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젠더정치의 관점에서 식민지시기를 고찰한 1990년대 이래 여러 연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 '여성'만큼 논란이 되는 범주는 없을 것이다. '여성'은 비서구 식민사회에서 전통과 근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민족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라는 대립을 둘러싼 논쟁의 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김수진, 2009). 그러나 식민지 시기 젠더와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는 사회사 및 여성사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잡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신문에서 여성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¹⁾

신문의 '여성란(women's pages)'은 일반적으로 여성기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여성 독자들의 이야기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즉 여성란은 한 사회의 여성 관련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場)이자, 여성들이 발화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arter, Steiner, & Flemining, 2004; Voss,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사회 최초로 '부인란'²⁾을 도입한 <매일신보>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신문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³⁾

한편, '부인과 가정'으로 명명된 부인란의 탄생은 당시 <매일신보>가 놓여 있던 저널

1) 신여성현상이나, 여성의 패션, 모성, 가족문제, 자유연애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경우 <신여성>, <신여자>, <별진곤> 등의 잡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활용했다.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로는 김미영(2004a, 2004b), 김혜경(2006), 정지영(2008)의 연구 등이 있고, 신문과 잡지를 모두 활용한 연구로는 김경일(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여성 관련 신문지면의 란(欄)을 지칭할 때, 식민지 시기의 일반적인 여성관련란은 '부인란'으로 표기하였고 기존연구나 서구 신문사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면(Women's pages)에 해당하는 지면일 경우 '여성란'으로 지칭하였다.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이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1920년대 신문지면 속 '여성'에 대한 연구 역시 조선어 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대표적으로 김미영, 2004a, 2004b). 민간지보다 먼저 '부인과 가정'란을 도입한 <매일신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리즘 환경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유일하게 발간된 조선어 신문이었다. 그러나 1920년 문화정치로의 전환과 함께 조선어 민간신문의 발간이 허용되고 이를 통해 조선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자 <매일신보>가 조선어 신문으로서 누렸던 독보적인 위치도 변화했다. 즉, <매일신보>는 조선인에 대한 '선전매체'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자층 확대를 위해 도입된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당시 조선총독부는 물론이고 조선사회의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부인'과 '가정'의 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란'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하였고, 어떠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여성과 가정을 규정하려 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이 등장한 1923년 11월부터 민간지에서 본격적으로 '가정부인란'을 운영하기 시작하기 전인 1924년 12월까지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부인과 가정'란의 도입배경, 지면의 운영방식, 주제 및 주요 필자 분석을 통해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특성과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의미에 접근해보기 위해 '부인과 가정'란이 <매일신보>에 등장한 1923년 11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해당란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925년부터는 조선어 민간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부인란을 운영하게 되므로 1925년 이후를 대상으로 부인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3개 신문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⁵⁾ 또한 독자의 관심사가 다양화되면서 1925년 이후 <매일신

4) 언론사 연구에서 <매일신보>는 조선어 민간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구대상이었으나 관련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일신보>에 대한 언론사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창간부터 폐간까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본 정진석(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민간지가 등장한 1920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문학작품과 관련된 것들이다(권유성, 2008; 이민희, 2012; 이희정, 2011b). 이 밖에 <매일신보>의 기사내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1920년대 전반기를 대상으로 <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을 살펴본 박현호(2005)의 연구와 수요역사연구회(2007) 등이 있다.

5) '가정부인란'이 등장한 것은 <동아일보>가 1924년 10월 13일이며 <조선일보>는 1924년 11월 24일이었다.

보) 학예면에서 '부인과 가정'란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 시기를 1924년 까지로 제한하였다.

1923년 11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총 43일, 52개 지면에서 242개의 기사를 수집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주당 발행횟수와 게재지면, '일요부록'에서 '부인과 가정'란이 차지하는 지면 비율, 기사 유형, 주제, 필자와 필자의 성별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 분석의 유목은 해당 시기 여성잡지와 신문의 여성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미영, 2004a, 2004b; 김수진, 2009)를 참고하여 작성한 뒤, '부인과 가정'란의 일부 기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⁶⁾ 2명의 코더가 코딩 프로토콜에 따라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홀스티 계수는 0.79로 분석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과 함께 '부인과 가정'란이 당시 여성과 가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기사(머리기사, 기고, 연재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인과 가정'란의 도입배경을 파악하고, 양적 분석 및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더욱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해당 시기를 다룬 여성사 및 사회사 연구와 일본언론사 및 일본의 부인란에 대한 연구도 참고하였다.

3.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도입배경

신문의 여성관련 지면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여성란의 등장이 신문의 상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다. 신문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신문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 내 소비의 핵심인 여성독자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가정란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최이숙, 2015; Baldasty, 1992; Carter et al., 2004). 그러나 '피식민'이라는 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민간지가 아닌 총독부 기관지에서 먼저 부인란을 도입한 배경을 '상업화'의 맥락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등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식민 본국인 일본의 영향, 조선어 민간지의 탄생이라는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총독부의 기관지이자 정책 선전의 장이라는 <매일신보>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은 식민 본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전

6) 구체적인 유목은 이 글 6장 참고할 것.

제한다. 일본 국내에서 부인란이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898년 3월이었으나⁷⁾ 본격적으로 부인란이 도입된 것은 191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 일본 국내 신문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오사카 신문 계열에 대항하기 위해(Freeman, 2000/2004) <요미우리 신문>이 여성독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1914년 부인란을 도입한 것이 그 시초였다.⁸⁾ 일본 본국의 이러한 사정에 비추볼 때,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역시 당시 일본 신문 체제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어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에서는 별다른 여성관련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향보다는 1920년대 민간지와와의 경쟁상황에서 도입배경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화정치 시행의 일환으로 1920년 세 민간지의 발행이 허용되자, 유일의 한글신문이었던 <매일신보>는 동일한 한국인 독자를 두고 민간지와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구독을 군, 면 등 지방 행정단위에 의무화하기 때문에 보급이나 판매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했을지는 모르나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조선인에게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영향력 확보의 문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1910년대에는 경성일보사의 한 부서에 지나지 않았던 <매일신보>가 독립된 편집국으로 개편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서울신문100년사 편찬위원회, 2004). 1910년대부터 독자문단 등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매일신보>는 독자층 확대 차원에서 1923년 11월 25일부터 일요일자 신문 3면을 '일요부록'으로 꾸미고 부인(가정), 아동, 문예로 해당 면을 구성했다. <매일신보>의 '일요부록'은 1923년 6월에 시작된 <동아일보>의 '일요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 <동아일보>와는 달리 '부인과 가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독자층의 확대를 꾀한 것이었다.⁹⁾

요컨대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도입은, 조선어 민간지가 발행되기 시작한 1920년대 상황에서 독자층을 확대하여 조선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겠다.

7) <대판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은 1898년(메이지 31년) 3월 6일자 6면에 사고(社告)를 싣고 '가정일문서(家庭の便)'라는 고정란을 시작했다. 해당란에는 '건강과 음식',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 법', '화장의 주의' '여름의 공기', '가정교육' 등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川嶋保良, 1996).

8) <http://www.yomiuri.co.jp/>

9) 이러한 상황의 반영으로, 1920년대에 들어 여성전문잡지들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1920년 3월 <신여자>가 창간되었고, 1922년 6월에는 개벽사가 잡지 <부인>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4.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지면 운영과 변화

<매일신보>에 여성독자를 위한 란(欄)이 등장한 것은 1923년 일요부록의 '부인과 가정'란이 처음은 아니었다. <매일신보>는 1920년 일종의 부인란을 간헐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위해 조선사회에서 최초로 여성기자 이각경을 채용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1923년 '부인과 가정'란 도입 이전의 부인란에 대해 살펴본 뒤 '부인과 가정'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부인과 가정'란 도입 이전의 부인란 운영

<매일신보>는 다른 조선어 민간지에 비해 이른 시기에 '부인과 가정'란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는 1920년 조선 최초의 공채 여기자를 선발하고 이 '부인기자'로 하여금 관련 기사를 쓰게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매일신보>는 1920년 7월 2일자 3면에 '부인기자채용' 공고를 내고 9월 5일자 3면에 부인기자로 '이각경 여사'가 입사했음을 기사화했다. 9월 14일부터 3면에 다소곳하게 탁자에 앉은 부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문패와 함께 '부인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각경이 쓴 일종의 가정방문기가 몇 차례 연재되었다. 이후 따로 '부인기자'를 내걸고 게재된 기사는 발견되지 않다가, 1921년 1월 1일자에 이각경이 쓴 "신년벽두를 제하여 조선가정의 주부께"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신년을 맞아 부인 개량을 위해 조선가정의 주부에게 전하는 4가지 조언을 주된 내용으로 한 이 기사는 6단에 걸쳐 3면 전체에 대대적으로 게재됨으로써 이를 후부터 시작되는 '가정부인'란의 서막을 열었다. '가정부인'란은 곧 '부인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1921년 3월 17일까지 운용되었는데, 192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게재되는 일요부록의 '부인과 가정'란과 제목이 같았다. 다만 '가정부인'의 후신으로서의 '부인과 가정'은 한글로 표기되었으며 단일 기사 위에 기사 제목처럼 사용되었다.¹⁰⁾ '가정부인'이 표제였던 1월 8일까지는 이각경이 집필했던 것으로 보이거나 '부인과 가정'으로 변하면서부터는 '신여자사(新女子社) 주필 김원주', '여류 양화가 나혜석' 등 외부 필자로 바뀌었다. 부인기자의 경우 "자부(子婦)를 둔 시부모여"(1921년 1월 3일자), "조선구가정의 부인이여 미신을 폐하라"(1921년 1월 7일자), "의복개량을 실행하라"(1921년 1월 8일자) 등과 같은 주로 구가정의 악습을 개선시키

10) 반면 1923년 일요부록의 '부인과 가정'란은 '夫人과 家庭'으로 표기되었으며 면제목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1 참조)

고자 하는 의도의 글을 게재한 반면에, 외부 필자는 “신년벽두에 조선여자에 대한 여의 소망(연애문제)”(1월 9일, 10일자), “양화(洋畵)전람에 대하여”(3월 17일자) 등과 같이 가정이라는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주제를 다루었다.

주로 3면 하단에 단일기사로 게재되었고, 제목을 제외하면 순 한글로 작성되었다. 한자가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 표기를 병행하여 제시했으나 한두 개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 독자층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였기 때문에 1920년대 초 부인란 운영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1920년대 초 여성독자층은 극소수의 신여성, 여자 유학생을 의미했고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성 독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윤금선, 2009). 공채 기자로 선발된 이각경이 1년 정도의 기자 생활 후 퇴사하였던 것(대한언론인회 편, 1992) 역시 부인란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 이유였을 것이다.

<매일신보>의 초기 부인란은 주로 가정방문기나, 가정 개량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공채로 선발한 부인기자의 붓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2)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등장과 위상 변화

<매일신보>는 1923년 11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자 3면을 '일요부록'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 3면의 핵심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단 1면 전체를 할애해 제목을 내세운 '부인과 가정'란이었다. 면 전체의 제목을 '부인과 가정'으로 내세운 것과, 이러한 체제에 걸맞게 부인과 가정 관련 이슈를 논평하는 '주평'을 사설처럼 첫 기사로 내세운 점은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일요부록'에는 부인(가정) 외에 어린이, 문예관련 기사 등 소위 민간지의 '학예면'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이 함께 배치되었는데, 1923년 '부인과 가정'란이 '일요부록'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신문 전체에서 '부인과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다. 발행 주기나 지면 비율을 통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우선, '부인과 가정'의 발행 빈도와 발행 지면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부인과 가정'란의 발행 횟수는 전반적으로 '일요부록'의 발행 횟수와 일치한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24년 초반 안정적으로 발행되었던 '부인과 가정'란은 1924년 5월의 경우, 발행 빈도는 2회로 줄었지만, 지면은 2면으로 확대되었다. 7월에는 단 한차례 독자를 찾아가는 데에 그치고 말았지만, 8월 이후 '일요부록'의 지면이 간헐적으로 확대되면서 '부인과 가정'



그림 1. 3면 전체의 제목으로 제시된 '부인과 가정'

출처: <매일신보>, 1923년 11월 25일자,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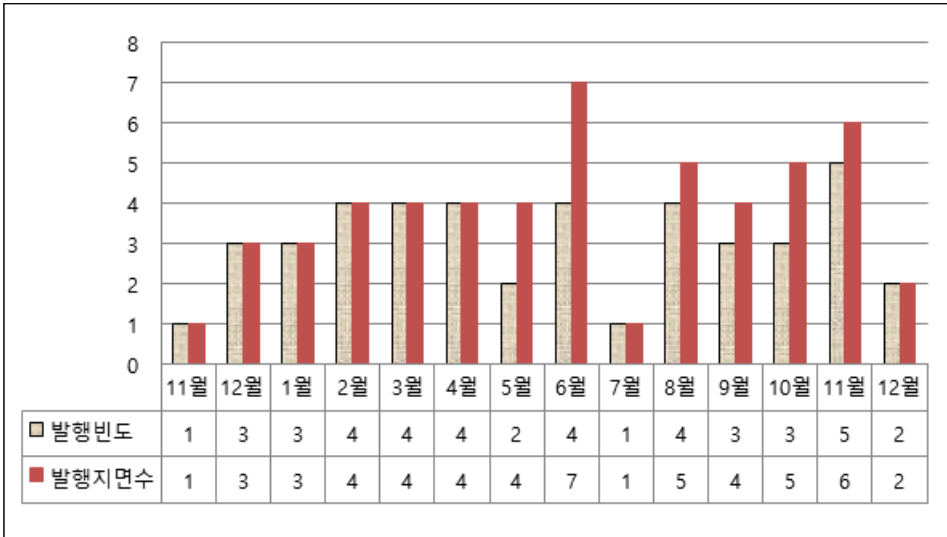


그림 2.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발행 빈도와 발행 지면 수(1923. 11~1924. 12)

역시 2개면에 걸쳐 게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매일신보>가 야심차게 '일요부록'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학예부가 따로 없었고 1920년대 내내 지면 증편이 없었던 생산 환경 때문에 '일요부록'이 안정적으로 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인과 가정'란이 '일요부록'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기사 수를 검토해보면, 초창기 '일요부록'에서 누리던 핵심적 지위가 서서히 변화해갔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일요부록'에서 '부인과 가정'란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별로 달랐다. 도입 초기, '일요부록'에서 부인 관련 기사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 1923년 12월 16일자(12월 16일)의 경우 지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였다. 당시 부인 관련 기사는 “주평”, “통속강화 난산과 안산”, “신여자에게”, “미담규화”, “견디어 참기 힘든 마늘(마늘)의 드럽고 모진 냄새”, “무연탄 때는 법”, “여자대 의사” 등 7건으로 이를 제외하면 어린이 문예와 “서울이야기”, 짧은 소설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1924년 초에는 지면의 1/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1924년 중반에는 다시 1/2 이상으로 증대되었다가 1924년 말에 이르면 1/3 이하로 축소되었다.

지면에서 '부인과 가정'란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요부록에서 '부인과 가정'란이 갖는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4년 5월부터는 3면에만 게재되었던 '일요부록'이 경우에 따라 3, 4면으로 확장되어 오히려 기사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3> 참조). 4면의 절반 이상은 광고로 채워졌기 때문에 '일요부록'의 양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으나 증면 없이 주로 4면으로 유지되었던 <매일신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다. 4면에는 '부인과 가정'의 일부 코너들, 즉 상담란인 '가정고문(顧問)'과 '음식솜씨' 같은 기사들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기사 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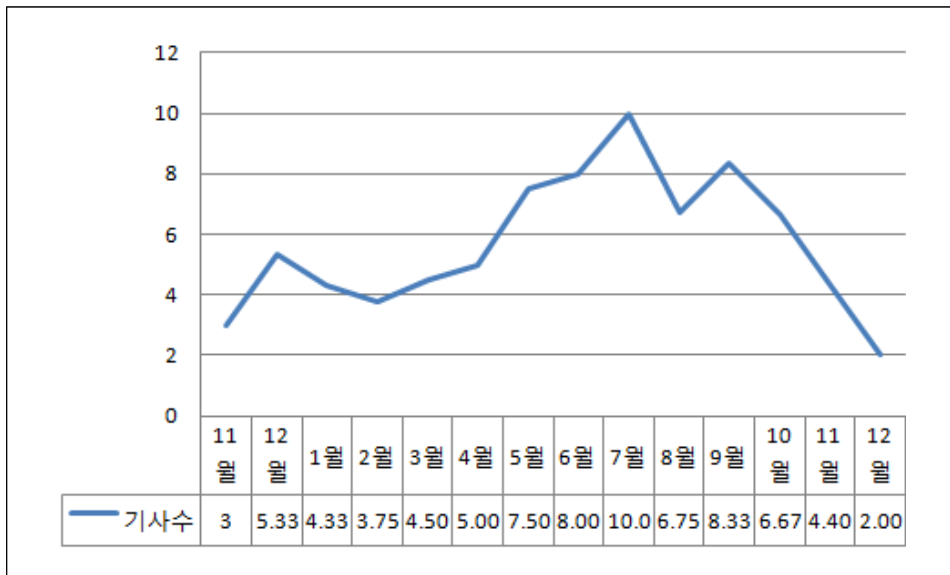


그림 3. '부인과 가정'란의 평균 기사 수 변화 추이(1923.11. ~ 1924.12.)

는 ‘부인과 가정’란이 1924년 중반까지 ‘일요부록’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24년 11월 16일자부터는 ‘부인과 가정’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면 비율이 1/3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일시적으로나마 ‘부인과 가정’란을 상징하는 그림문패와 표제 자체가 사라지고 관련기사들의 위치도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왔다. 11월 16일자의 경우, 상단에 위치한 문예관련 기사와 문예물에 뒤이어, 별도의 ‘부인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이 부활하는 시대’라는 논평과 “에피소드”, “부인잡감” 등의 기사가 간략하게 실렸다. 11월 23일자 3면부터는 ‘부인란’이라는 제목마저 사라지고 나체의 여성을 형상화한 그림문패가 면 하단에 제시되어 해당 기사들이 ‘부인란’ 기사임을 보여줄 뿐이다. 12월 7일자부터는 ‘일요부록’이라는 면제목이 이 그림문패와 함께 상단 도입부에 제시되고 (<그림 6>) 부인 관련 기사들이 다시 상단에 자리하였지만, 문예란의 확대 및 과학란의 신설과 함께 그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면 비율의 변화와 함께 ‘부인과 가정’란을 표상하는 문패 이미지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도입 당시 상단 1단 전체에 걸쳐 면 제목으로 제시되었던 ‘부인과 가정’란 문패는 1924년 4월 6일자부터 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을 형상화한 3단에 걸친 세로형 그림문패로 대체되었다. 위쪽에 ‘부인과 가정’을 표기하고 아래쪽에 ‘일요부록’을 써넣어(<그림 4> 참조), 전달하는 내용은 이전 문패와 동일했을지 모르나 1단 전체에 걸쳐있던 제목이 우측 상단 일부로 변경되면서 지면 전체에 대한 지배적인 위상을 상실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지면구성은 4월 20일자까지 유지되다가 4월 27일자부터 두 달 동안은 다시 이전의 면 제목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6월 29일자부터는 신여성상을 연상시키는 단발머리, 종아리를 드러낸 짧은 치마의 여성이 정면을 향해 서있는 새로운 그림 문패(<그림 5> 참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이전 그림문패 속 여성이 가정에 연계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면 새로운 그림 문패는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여성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 그림문패는 11월 23일부터는 나체의 여성을 형상화한 그림 문패로 대체되었다(<그림 6>).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가정부인’의 모습에서 ‘신여성’, 그리고 ‘나체 여성’으로 변화가는 과정은 조선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층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지면 운용에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부인과 가정’란의 기사들이 <매일신보>의 여타 지면 및 일요부록 내의 ‘문예란’과 달리 순 한글 사용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도입부에 눈설처럼 제시된 ‘주평’에서는 한자가 한글과 섞여 사용되기도 했으나 부인



그림 4. '부인과 가정'란의 세로형 그림문패 (<매일신보> 1924년 4월 6일자 3면)



그림 5. 신여성을 형상화한 그림 문패 (<매일신보> 1924년 6월 29일자 3면)



그림 6. 나체의 여인을 형상화한 그림문패 (<매일신보> 1924년 11월 16일자 3면)

들이 꼭 읽어야 할 설명기사, 예를 들어 “난산과 안산”과 같은 의학정보기사의 경우 순 한글이 사용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미담규화’와 같은 이야기나 가정 개량을 위한 설명기사들도 한글로 작성되었다. 면 제목에 변화가 있었던 1924년 4월 6일자부터 한글 사용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논설적인 주평이 사라지면서 제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가 순 한글로 기술되고 필요에 따라 한자가 괄호 안에 함께 제시되었다. 이처럼 ‘부인과 가정’란이 순 한글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당시 여성독자층을 위한 것이었다. 부인란에 순 한글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다른 조선어 민간신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부인란을 운영했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학예면에 해당하는 ‘일요부록’의 주요 부분으로 등장했다. ‘부인과 가정’란은 도입초기에는 ‘일요부록’ 내에서 지배적 위상을 차지했지만 점차 학예면의 한 부분으로 변화해갔다. 여성독자를 겨냥해 학예면의 중심으로 야심차게 등장했던 ‘부인과 가정’란이 ‘일요부록’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은 이를 대신해 전면에 대두되기 시작했던 문예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920년대 중반 기성 작가 및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컸던 문예란의 부상은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일요부록’에서 ‘부인과 가정’란을 점차 주변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5. 독자에게 말 걸기: '부인과 가정'란의 기사 유형과 외부 필자 비율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독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걸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신보〉의 기사를 전체 기사와 각 날짜별 머리기사로 나누어 기사 유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현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노동 관련 정보(예를 들면 의류 건조법 등)를 제공하는 설명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칼럼 및 기고, 해설 및 분석 기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재기사이기도 했다. 반면 단신이나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트레이트보다 설명이나 의견기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1920년대 신문이 보여주는 계몽적인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여성독자를 계몽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 걸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머리기사는 물론이고 전체 기사에서 칼럼 및 기고 기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칼럼이나 기고 기사가 외부 필자에 의해 주로 기술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이 신문사 내부 필진보다는 외부 필진에 의존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필자 기사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담기사인 '가정고문'의 질문자를 제외한 외부 필자의 글은 전체 242개 중 기사의 39.3%(95개)였다. 가정란의 전체 논조와 깊은 관련이 있

표 1. <매일신보> 가정란의 기사 유형

기사 유형	전체 기사(개수 - 비율%)	머리기사(개수 - 비율%)
스트레이트	4 (1.4%)	
연재	40 (13.7%)	6 (12.2%)
칼럼 - 기고	75 (25.7%)	23 (46.9%)
해설 - 분석	29 (10.0%)	17 (34.7%)
인터뷰	2 (0.7%)	-
설명 - 정보전달	86 (29.6%)	1 (2.0%)
단신	6 (2.1%)	-
상담	16 (5.5%)	
사진	14 (4.8%)	
기타	19 (6.5%)	2 (4.1%)
합계	291	49

표 2. 외부 필자의 성별

	남성	여성	알 수 없음	계
주필자 및 답변자	49 (52.1%)	19 (20.2%)	26 (27.7%)	94
부필자 및 질문자	3 (18.8%)	9 (56.3%)	4 (25%)	16
합계	52 (47.3%)	28 (25.5)	30 (27.3%)	110

는 머리기사의 경우도 총 39개 중 20개(51.2%)가 외부 필자의 글이었다. 이 중에서 여성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외부 필자의 25.5%였다.

여성필자가 <매일신보>의 부인란 지면에 참여한 방식의 32.1%는 상담기사의 질문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여성잡지인 <신여성>의 외부 필자 중 여성의 비중이 1923~1936년까지 전시기에 걸쳐 25.1% 정도였던 점에 비취본다면(김수진, 2009, 190쪽), <매일신보>에서의 여성독자의 참여는 당시 언론 공간의 일반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독자 참여 방식의 32.1%가 상담기사의 질문자였으며, 칼럼 및 기고의 비중은 20.2%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실제 이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편집국 외부에서 생산된 글이 많았다는 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당시 <매일신보> 가정란의 제작환경과 연관된다. '일요부록'의 하나로 부인란이 본격화되었지만, <매일신보>에는 민간지와 달리 부인란을 제작할 수 있는 부서도 없었고 여성기자도 없었다. <매일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사사(社史), "아사(我社)의 회고 이십년"(1924년 6월 1일자)에 의하면 1920년 당시부터 '부인과 가정'란이 등장한 후인 1924년 6월까지 <매일신보>의 편집국은 논설부·편집부·외사부·사회부·지방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가정고문'의 상담기사에 '응답계'라는 언급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민간지와 유사하게 학예면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함께 이각경의 퇴사 이후 상당기간 부인기자를 선발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박용규, 1997), 실제로 <매일신보>의 부인란은 당시의 여성잡지나 민간지와 달리 주로 남성기자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전담 제작 인력의 부재는 외부 필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따라서 외부 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칼럼 및 기고 글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성된 기사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외부 필진이 다양했다는 것은 곧,

소수의 전담 인력만이 해당란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이슈가 다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20~1921년 부인기자 이각경이 다루었던 주제에 비해 외부 여성 필자들에 의해 기술된 기사들의 주제가 더 다채로웠음을 4장 1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들 외부 필자들이 기술한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6. 무엇을 '부인의 문제'로 바라보았는가?: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주요 이슈

1) 전체 기사의 주제 분류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제 유목에서 '의식주'는 실제 가정생활에 연계된 의복·식사·주거 문제를 의미하고 '연애/결혼/가족'은 자유연애, 결혼 제도, 부부, 부모자식 및 기타 가족 관계, 가족 제도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한다. '육아/양육'은 가정 내 자녀교육을 비롯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의미하며, '몸/섹슈얼리티(sexuality)'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기사, 임신과 출산, 성욕에 대한 논의들을 말한다. 당시 시대에 맞는 여성상에 대한 논의나 양성평등에 대한 기사는 '여성의 역할/성평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밖에 '현실비판/개혁'이란 조선의 현실을 진단하고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나 구제도 및 구습타파를 다룬 내용을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애/결혼/가족에 관련된 주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였다. 건강/위생, 의식주, 육아 및 양육 기사가 그 뒤를 이었다. 예상과 달리 의식주 중심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칼럼 및 기고, 해설 및 분석 등 의견기사가 주를 이루었던 머리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기사와 마찬가지로 연애/결혼/가족 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심지어 전체의 1/3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다만 전체 기사와는 달리 건강/위생을 논하는 경우는 적고, 육아/양육 기사와 함께 여성의 역할/성평등, 현실 비판/개혁 관련 기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머리기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연애/결혼/가족 관련 기사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자유연애에 대한 내용은 전체 머리기사의 1.5%(전체 기사의 5.6%)에 불과했던 반면, 식민지 조선의 가족제도 및 가정의 풍습과 관련된 기사는 머리기사의 13.4%(전체의 3.4%)를 차지했으며, 결혼 및 부부 관계에 대한 기사가

표 3.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주요 주제(중복코딩)

주제	전체	머리기사
의식주	53 (14.9%)	3 (4.5%)
연애/결혼/가족	67 (18.9%)	21 (31.3%)
육아/양육	33 (9.3%)	12 (17.9%)
몸/섹슈얼리티	30 (8.5%)	2 (3.0%)
여성의 역할/성평등	24 (6.8%)	10 (14.9%)
건강/위생	56 (15.8%)	3 (4.5%)
교육/노동/사회활동	13 (3.7%)	2 (3.0%)
현실비판/개혁	24 (6.8%)	10 (14.9%)
해외소식	8 (2.3%)	-
일상에 대한 단상	8 (2.3%)	-
인물/행사소개	5 (1.4%)	-
기타	34 (9.6%)	4 (6.0%)
합계	355	67

머리기사의 10.5%, 전체 기사에서도 10.1%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언론공간에서 신여성 담론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잡지 <신여성>의 기사 경향과는 사뭇 다르다. 1923~24년에 발행된 <신여성> 기사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진 주제는 '교육과 여학교'로, 교육문제 및 여학교의 실태 및 생활 등을 다룬 기사들이었다. '자유연애와 결혼' 및 '신여성 비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성과 연애', '결혼과 가정 관념' 등과 같은 주제는 거의 다루지지 않았다(김수진, 2009, 46~49쪽). 여성잡지가 여성기자의 주요 활동공간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매일신보>는 여성들이 실제로 당면한 문제들을 논하기보다는 기관지의 입장에서 조선의 가족 제도나 가족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외부 필자에 따른 주제 분류

그렇다면 <매일신보>에 참여했던 외부 필자들은 어떤 주제로 글을 썼으며, 필자의 성별에 따라 다루어진 이슈는 어떻게 달랐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 소속, 그리고 필자의 성별에 따라 주제를 분석하였다(표 4).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내/외부 필자, 그리고 외부 필자의 성별에 따라 다루어진 주제는

상당히 달랐다. 〈매일신보〉 편집국 내부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은 의식주 관련 기사였다. 이는 ‘음식솜씨’, ‘가정순지’ 등의 고정코너를 통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설명기사가 편집국 내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가정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섭취 등 계몽적 관점에서 생활 개선을 요청하는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식주 관련 이슈를 다룬 외부 필자와 관련해서는 여성필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상담코너인 ‘가정고문’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의식주였고 여성독자들이 해당 주제를 묻는 질문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연애/결혼/가족과 건강/위생이었다. 특히 이 두 주제는 몸/섹슈얼리티 이슈와 함께 외부 필자들이 주로 다룬 주제였다. 그런데 주제별로 필자 구성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연애/결혼/가족 이슈가 필명 또는 실명으로 글을 기고했던 지식인이나 일반 독자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반면, 건강/위생이나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는 당시 서양의학의 공부한 의사들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다. 필자 구성이나 그 내용에 비춰볼 때, 연애/결혼/가족 이슈는 유교적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결혼을 주창했던 당시 조선의

표 4. 기사의 출처, 외부 필자의 성별에 따른 주제(중복코딩)

주제	필자의 소속		필자의 성별*	
	편집국 내부	외부 필자	남성	여성
의식주	50 (24.5%)	10 (6.2%)	1 (1.3%)	6 (13.6%)
연애/결혼/가족	33 (16.2%)	27 (22.8%)	12 (15.0%)	13 (29.5%)
육아/양육	18 (8.8%)	15 (9.3%)	6 (7.5%)	3 (6.8%)
몸/섹슈얼리티	6 (2.9%)	25 (15.4%)	17 (21.3%)	4 (9.1%)
여성의 역할, 성평등	6 (2.9%)	19 (11.7%)	9 (11.3%)	5 (11.4%)
건강/위생	32 (15.7%)	27 (16.7%)	20 (25%)	2 (4.5%)
교육/노동/사회 활동	8 (3.9%)	5 (3.1%)	3 (3.8%)	0 (0%)
현실 비판/개혁	12 (5.9%)	12 (7.4%)	3 (3.8%)	6 (13.6%)
해외소식	8 (3.9%)	-	-	-
일상에 대한 단상	4 (2.0%)	4 (2.5%)	3 (3.8%)	-
인물/행사 소개	5 (2.5)	-	-	-
기타	22 (10.8)	19 (11.7%)	6 (7.5%)	5 (11.4%)
합계	148	164	44	40

*여성필자들이 질문자로 지면에 참여한 것을 고려하여 주필자(응답자)와 부필자(질문자)를 합산한 것임

지식인들 및 신여성들의 관심을(김혜경·정진성, 2001; 박찬승, 2007)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성필자들이 남성필자에 비해 성평등이나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현실 문제 등을 많이 다루었다. 반면 건강/위생, 몸/섹슈얼리티 이슈는 이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의 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임신과정에서부터 각종 부인병, 출산, 불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 이 주제의 기사들은 총독부의 여성에 대한 시선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부 필자의 경우, 연애/결혼/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은 것이 건강 및 위생,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 그리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였다. 총독부의 조선어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외부 필자가 제기했던 이슈나 논점은 때로는 총독부의 가정/부인에 대한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이와는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조선사회 지식인들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7. 조선의 가정과 부인, 부인의 역할에 대한 시선들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서 부인으로 지칭된 여성과 그 테두리로서의 가정은 어떻게 규정되었을까? 이에 접근해 보기 위해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주요기사들에 대해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주제별로 해당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한 후, <매일신보>가 '가정'과 '부인' 그리고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1) 개량의 대상으로서의 조선 가정과 가족 관계의 재구성

'부인과 가정'란의 출범을 알리는 첫 주평에서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개량의 공간으로 지칭되었다(1923년 11월 23일자 3면). 흥미로운 것은 가정의 개량을 논의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기본인 가족관계를 근원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기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가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공간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와 결혼 제도, 부자 관계나 고부 관계 등 기존 가족 관계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기사가 많았다. 구가정, 즉 전통적인 조선의 대가족 제도 및 그 안의 가족 관계, 가족의 관습은 내·외부를 막론하고 당시 <매일신보>에 글을 쓴 논자들의 비

판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 현실비판/개혁 항목의 소주제인 구습 타파와 관련된 이슈의 40% 정도가 연애/결혼/가족이었으며, 연애/결혼/가족 항목 전체의 25%가 결혼 제도 및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개조의 대상’으로서의 가정과, 가정을 구성하는 기초인 결혼 문제가 당시 <매일신보> 지면에서 중요한 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기사는 ‘부모를 위하여 결혼함은 죄악’이라고 언급하며 낡은 결혼 제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결혼이란 그 본질상 결코 부모나 도덕을 위하여 될 것이 아니요 자기라는 자기에 근본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윤리적 관계가 있으나 그러나 그 외에 각각 일개 인으로서의 인격이 있으며 개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이라면 시비곡직을 무론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갓흔 종순(從順)은 종순이 아니오 허위이며 부모덕입니다. (윤석중, 1924년 7월 13일, <매일신보> 3면)

이 기사는, 낡은 결혼 제도가 당사자가 아닌 부모를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결혼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원만한 가정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혼인 자녀에게 교제의 자유를 줄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당시 사회가 ‘자유교제’를 너무 위협 시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 향상과 결혼 문제” 역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친다 (1924년 8월 10일자 3면). 이러한 주장은 꼭 ‘자유연애’에 대한 옹호라기보다는 부모의 강제에 의한 결혼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처녀의 자백”이라는 연재기사 (1924년 10월 5일자, 1924년 10월 12일자 3면)는 부모의 간섭 때문에 결혼을 못한 노처녀의 기고글로 부모의 결혼에 대한 간섭이 자녀의 결혼과 행복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했다.

부모의 간섭이 없는 당사자 중심의 결혼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는 파스한 가정이었다. 주평, “선결할 문제”에서는 “남자는 밖에 거(居)하여 안 일을 간섭치 아니하고, 여자는 안에 거하여 바깥일을 간섭치 아니하고, 며느리는 부엌에 간혀서 마당에도 뛰어나오지 못하고, 자식은 공부하는 방 속에 파묻혀 집안일을 모르는 체하”는 것으로 조선의 가정을 묘사하고, 이를 남편이 ‘아내와 자제와 며느리에게 너무 엄하게 굴기 때문’이라며 평상시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1923년 12월 16일자 3면). 이렇게 하여 항상 가정에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제각기 서로 충고를 할 수 있어야 가정을 개량도 하고 향상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기사는 좀 더 근본적으로 부부 중심의 가족 관

계를 다루었다(1924년 9월 14일자 3면). 이 기사는 남편과 부인이 대화를 직접 하지 않고 하인을 통하는 것과 같은 과거의 격식들이 우스워지고 있다면서, 집안이 화락하고 불화하는 근원을 부부 관계에서 찾는다.

가족 간의 관계 중에서 또 하나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부자 관계'였다. 주평 "유일한 지기(知己)"(1924년 2월 10일자 3면)에서는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그러나 아들을 그 자신으로 보지 않고 원하는 기준에 맞추려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부자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며 부자 사이에 '허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자(愛子)의 대의(大意)"(1924년 1월 27일자 3면)라는 기고 글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문제 삼고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아버지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아들에게 강제로 효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해볼 만하다.

훈이 난 아들을 가라치되 효도만 하라고 요구합니다.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본인 고로 아들된 자는 반드시 효도를 아니치 못할 것임니다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효도를 강제로 요구함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고용준, 1924년 1월 27일, <매일신보> 3면)

합리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논하며 일방적으로 효를 강요할 수 없으니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흥미롭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새로운 가족 관계, 부부 중심의 가족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상적인 가족의 상은 가족 간의 배려와 대화가 넘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소위 서구적 핵가족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강제나 의지가 아닌 당사자의 자유교제에 기반을 둔 결혼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가족은 화락한 부부 관계에 기초하여 자식에게 '효'를 강요하지 않고 자식을 그 자신으로 존중해 결국 가정의 개량과 향상을 이루어 내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 가족 구도에 대해 신문의 부인란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가능해진 1920년대 상황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 관계에서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남성과 가장에게 순종해야 할 존재로 위치하게 해 남성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축첩을 해도 이를 인내해야 한다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민지 상황이기도 해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그 폐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이배용, 2003).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효’를 강요하는 부자 관계에 대한 비판이다. 식민지 시기 교육에 대한 몇몇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바, 식민통치의 주요 목표는 식민지 주민들을 ‘황국신민화’하는 데에 있었고, 조선인의 자발적인 순종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족주의를 천황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국가주의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임희숙, 2005). 부자 관계에 대한 비판들이 ‘충’을 강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효’에 대한 강요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소가족 제도에서는 개인이 직접 사회, 국가와 연결되는 데에 반해 대가족 제도에 개인은 먼저 가족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거쳐 간접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며 그 결과 사회보다 효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이배용, 2003). 즉, ‘부인과 가정’란의 가족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효’를 억제하고 ‘충’을 강조해야 하는 식민지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24년 하반기에 투고모집을 통해 릴레이 형식으로 게재된 “가정의 평화”를 주제로 한 기사들은 당시 가족 관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매일신보>는 1924년 10월 5일자 4면에 “가정평화에 대한 투고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와 함께 “가정이 평화하자면 나를 단장시켜 보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어서 “가정평화를 얻자면 남편을 감화시킬 일”(10월 12일자 3면), “화락한 가정에 살려면 친구로 대접하오”(10월 26일자 3면), “가정을 완전히 하자면 살림여가에 공부하오”(11월 2일자 3면), “병신가정이 안되려면 인격과 지위를 주오”(11월 9일자 3면) 등이 게재되었다. 주로 주평에서 주장된 새로운 부부 관계가 현실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장벽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남편이 부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장시켜야 한다거나 질투를 심하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맞춰 남편을 감화시켜야 한다, 혹은 주부된 이가 살림 여가에 틈틈이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평등한’ 부부 관계보다는 여성의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도 사람이고 개성이 있으니 인격을 달라거나 아내를 친구로 대접하라는 등의 주장 역시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던 당시 부인들의 사정을 잘 반영한다.

2) ‘부인’으로 대표된 조선의 여성, 그리고 부인의 역할

‘부인과 가정’란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당시 <매일신보>는 여성을 주로 ‘부인’이나 ‘주부’ 혹은 일반적 ‘여성’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제목에 ‘여성’을 내세운 기사들도 그 내용을 보면 가정이 여성의 왕국이라거나 여성의 위대함은 가정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가정부인’

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신여자'나 '신여성'과 같은 호칭은 많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부인과 가정'란 운영 초기에 게재된 "신여자에게"(1923년 12월 16일자 3면)라는 기사는 <매일신보>가 지니고 있었던 신여자/구여자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 이 기사에 따르면 흔히 교육받은 여자를 '신여자'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은 당시의 조선 여자계가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요 시대'에 있으니 교육자 혹은 부모들이 이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신여자'를 단순히 교육받은 여자라고 지칭하고, 실제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여자 스스로나 주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여자'나 '신여성'을 내세운 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신보>가 초창기 '부인과 가정'란을 운영하면서 근대적 여성을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 발간된 여성잡지가 <신여자>였고, 개벽사가 1922년 6월 잡지 <부인>을 운영하다가 1923년 9월 <신여성>으로 개제 발행한 점, 두 조선어 민간지가 본격적으로 부인란을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 1924년 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 여성잡지의 이름을 차용했거나 단순히 '구여자'에 대한 반대 의미로 '신여자'라는 호칭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¹¹⁾

이와 같은 조선의 신여자 혹은 부인에게 당시 가장 시급한 일은 교육이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 '가정고문'란이 개설된 후, 첫 질문은 '여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사회에 이익이 될까?'였는데 이에 대해 <매일신보>측에서 응답하기를 "조선여자의 가장 급한 의무는 좀 우선 배워야 하겠습니다. 전문지식보다도 보통지식을 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1924년 4월 27일자 3면). "여성의 위대(하)"라는 주평에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여성에게 충분한 교육을 주어 여성의 정신과 도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1924년 3월 9일자 3면). 그러나 부인에 대한 교육은 여성해방이나 부인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부인의 역할에 대한 여러 기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다음 내용이 대표적이다.

11) 일본에서 전통적 여성상과 다른 소위 '새로운 여자(新しい女)'가 등장한 것은 1911년 일본 최초의 여성잡지인 <세이토(靑鞆)>가 창간되면서부터였다. <세이토>를 창간하고 이 잡지를 중심으로 남녀 평등, 연애의 자유 등을 주장했던 히라스카 라이초우(平塚雷鳥)가 대표적인 '새로운 여자'였다. 그러나 <세이토>가 급진적인 주장 내용 등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1916년 폐간되자 '새로운 여자' 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 그 후, 일본의 <여성>지가 처음 언급했던 '모던 걸'이라는 표현이 1926년부터 대중화되면서 조선의 '신여성'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모던 걸'은 1910년대 '새로운 여자'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지만 지칭하는 의미는 '직업을 가진 경제력 있는 여성', '근대적 소비문화의 향유자' 등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인류사회의 단위가 되고 인생행복의 근원지가 되는 이 가명을 처리하는자 누구며 그 가족을 먹이고 길으는자 누구임닛가 또 그 자녀를 감화하고 교육하는자 누구며 친족의 화목을 보존하며 식구들의 위생을 담임한자 누구임닛가. 나는 모든 책임이 그 가정의 주부되는 부인에게 잇다합니다. 그럼으로 가정과 부인의 관계는 국가와 국무대신과의 관계보다도 더욱 중대하고 부인의 가정에 대한 책임은 참모장의 전쟁에 대한 책임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고용준, 1924년 10월 12일, <매일신보>, 3면)

다시 말해, 가정의 주부되는 부인의 역할은 행복의 근원지인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고 위생을 담당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의 역할에 대한 시선은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하나의 왕국에 비유하여 부인의 천직은 가정에 있다고 묘사하는 것이 재미있다. 위 글에서도 가정과 부인의 관계를 국가와 국무대신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지만, “여자의 왕국”이라는 기사에서는 소위 자각했다는 부인들이 가정을 경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부인의 천직은 가정에 있다고 강조한다(1924년 2월 10일자 3면). 여자의 왕국은 가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의 위대(하)”라는 주평 역시 “행복이나 불행, 문명과 야만은 가정이라는 여자 특유의 왕국을 잘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여성의 위대함을 가정에서 찾는다(1924년 3월 9일자 3면).

이와 같은 여성의 ‘왕국’, 가정에서 부인에게 부여된 역할은 다양했지만 양육과 가정 교육이 특히 강조되었다.

가명은 또 인간최초의 교육소이다 그러면 가명은 실로 인간의 묘포(苗圃)라고 말할 수 밧게 업다. 만일 싹(苗)일 때에 조치못하면 후일에 아름다운 실과(實果)를 매지지 못할 것은 당연한 리치일 것이다 최초의 인상과 습관은 사람의 평생의 기초를 맨기는 곳인 고로 최초의 교육이 사람의 일생의 원동력이다 또한 그 원동력의 발전소라고 할 만한 곳은 즉 가명이라고 말할 수밧게 업다 사람의 어렸슬 때에는 모방성이 강하고 감응력이 둔한 고로 부모된 이가 특히 주의하지 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일가명의 주부된 이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 하면 아니될 줄로 생각한다 (강영원, 1924년 11월 23일, <매일신보>, 3면)

제목에 “주부된 이의 책임”으로 ‘가정과 교육’을 내세운 이 기사는 가정은 인간 최초의 교육소이며 원동력의 발전소이므로 주부된 이의 책임이 이 가정의 교육에 있다고 주장한

다.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배운 지식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배운 지식보다 근본적이니 가정교육에 힘써야 한다(“여자의 왕국”, 1924년 2월 10일자 3면)는 기사도 가정교육에 대한 부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양육법과 관련된 기사들인 “젓먹이 아이를 끌어안고 자지 마시오”(1924년 3월 9일자 3면, 16일자 3면), “장난감 선택에 주의할 일”(1924년 3월 9일자 3면), “교자(敎子)강좌: 아이를 꾸짖기 칭찬하는 방식”(1924년 3월 16일자 3면), “아이들의 병을 예지하는 법”(1924년 8월 3일, 8월 10일) 등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들이었다.

한편, 6장에서 잠시 살펴본 바 있지만,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 역시 부인의 역할과 관계된 것이 많았다. 우선 건강 관련 눈에 띄는 기사는 경성부인병원장 구도다케키(工藤武城)의 “통속강화(通俗講話) 난산(難産)과 안산(安産)”이라는 연재기사다. 일요부록이 처음 시작된 날부터 1924년 4월 6일까지 무려 1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조선부인의 임신과 해산과 또는 해산한 뒤에 조섭이 덕당치 못함으로 인연하여 가이업시 죽는 산모와 어린애의 수효가 얼마나 만흔지 그것을 생각하면 누구던지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업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전체가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넉넉지 못함과 또는 새로운 지식을 닦근 산파가 부족한 것은 달니 양성할 방침도 잇겠스즉 그것은 이에 말할 필요가 업습니다만은 임신과 해산과 및 해산 후의 조섭에 대하여 될수잇는대로 아라듯기 쉬웁게 이악이하야 볼 작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래에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다만 한분이라도 구원을 바드신다하면 본인에게 대한 보슈는 이만치 큰것이 업는 줄로 생각합니다. (工藤武城, 1924년 4월 6일, <매일신보>, 3면)

이렇게 조선부인과 어린애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연재는 처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는 과정부터 임신의 증상, 임신 중 주의할 일, 출산 과정, 산후 조리, 최종화 불임에 대한 것까지 매우 상세한 기술을 담고 있었다. 4월 6일자에 구도의 난산과 안산이 끝나자 바로 대구중앙병원장 박영대의 가정위생 연재가 시작되었다. 이 역시 5회에 걸쳐 비중 있게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의/식/주의 위생을 신경 써야 한다면서 의복, 음식물, 주택의 위생, 부인의 위생을 다루었고, 특히 부인의 위생을 강조하며, 월경, 임신, 육아법까지 2회에 걸쳐 다루었다. “난산과 안산”과 비슷한 주제로 이와 같은 위생이나 건강, 의학과 관련한 기사들은 여성의 몸을 출산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심하고 자궁병을 치료하는 법”이라는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1924년 3월 9일자 3면).

가정위생 연재가 끝난 후에는 파리(1924년 5월 11일자, 1924년 6월 8일자), 변소 악취 (1924년 6월 15일자), 벼룩(1924년 6월 22일자), 모기 잡는 법(1924년 8월 10일자) 등에 대한 기사가 계속되고 이후에는 “목욕시의 주의”(1924년 7월 13일자), “저녁때 이후의 식빙(食氷)은 절금”(1924년 8월 3일자), “소아의 대적은 과물과 냉침”(1924년 9월 7일자), “간단한 정수소독”(1924년 9월 28일자) 등 일상생활상의 상식처럼 알아야 할 위생 관련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가정의 위생은 모두 여성의 책임이었다(“가정의 위생은 여자 된 이의 책임”, 1924년 10월 26일자).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 위생 관련 기사들은, 식민지 시기 ‘의학’ 지식을 통해 식민지 권력을 작동시키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난산과 안산”을 집필한 구도 다케키는 의료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유학한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의 ‘부인과학’적 지식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조선 부인을 구해야 한다는 계몽적 의도로 조선어 미디어를 통해 설파되었다(홍양희, 2013). ‘의학’이나 ‘위생’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동시에 식민본국과 식민국의 차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기도 했던 것이다.¹²⁾

의/식/주와 관련된 다수의 기사들도 대부분 가정 내 부인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주거 관련 기사는 경제적 문제나 위생 문제와 결부시켜 주거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합정을 장치한 응접실”, 1923년 12월 2일자; “가옥벽의 누음을 방어”, 1924년 9월 28일자), 의복은 위생에서 많이 다루어지기도 했지만 의류정리법(1924년 8월 31일자)이나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불면 모발 위에 모자를 쓰라는 조언 (1924년 2월 24일자) 등 가정 내 의류 관리나 사용에 대한 조언들이 많았다. 음식 역시, 같은 재료라도 요리방법을 달리하라는 조언이 담긴 “동일한 요리는 영양부족”(1923년 12월 9일자), 반찬으로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하라는 “부식물의 영양은 육식? 채식?”(1924년 9월 28일자), 재료보관 및 손질에 관련된 “공복때에 잡은 생산 더디 상한다”(1924년 9월 7일자) 등 계몽적 입장에서 음식 준비와 관련해 설명해 주는 기사와, 다 같이 맛있게 만들어 먹자며 김치와 국에 대해 소개해준 연재 “음식솜씨”와 같은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12) 건강관련 기사들은 외부필자의 성격을 또한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로 남성전문가에 의해 기술되었고, 남성외부필자가 다룬 주제 중 건강/위생에 대한 것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을 위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거나(“여자 해방문제- 실력양성이 선결조건”, 1923년 12월 2일자), 여성이 힘을 키워야 한다(“약한 자의 죄”, 1923년 12월 9일자), 혹은 여자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여자도 직업을 힘써야 한다”, 1924년 9월 7일자)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기사 역시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게재되었으며 게재시기도 ‘부인과 가정’란 운영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내용 역시 피상적으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거나 힘을 길러야 한다, 직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머물렀을 뿐이고 이를 위해한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요컨대,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조선의 여성을 주로 ‘가정의 주부되는 부인’으로 지칭하였으며 그 역할을 ‘가정’이라는 왕국 안에 국한시켜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고 위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가정고문’ 답변이 제기하듯, 이러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보통 정도의 지식이었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지식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여성교육 정책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일어와 재봉 및 수예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식민지교육으로 전개되었다(임희숙, 2005)는 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지식교육을 억제하고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교과목화한 기예교육을 중시하는 소위 ‘현모양처’ 여성교육(박정애, 2000)이 조선의 여성·부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었던 것이다.

8. 결론

식민지 시기 신문매체에서 ‘여성’의 존재가 하나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중반이었다. <매일신보>가 ‘부인과 가정’란을 전면에 내세운 일요부록을 학예면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였다. 이전에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범주로 호명되던 여성은 이제 ‘부인’ 혹은 ‘신여자’ 등의 독립된 범주로 표상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기 신문에 게재된 여성 관련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매체에서 여성을 어떻게 새로운 주체로 구성해냈는가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는 전통과 근대, 서구와 동양, 식민과 피식민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었고,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가치관이 투영된 복합적 존재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란인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을 대상으로, ‘부

인과 가정'란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고, 어떤 이슈를 통해 당시의 여성을 규정하려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인과 가정'란이 <매일신보>에 처음 등장한 1923년 후반부터 1924년 12월까지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그 유형과 주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부인과 가정'란의 특성과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매일신보>는 조선어 민간지의 등장이라는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일한 조선어 신문으로서 누리던 위상이 위협받자, 여성독자에게 소구하는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한 방책으로 '부인과 가정'란을 도입하였다. 1920년 조선 최초의 부인기자를 고용하고, 불안정하게나마 부인란을 운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1923년 11월부터 '부인과 가정'란을 핵심으로 하는 일요부록을 3면에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인과 가정'란은 <매일신보>에 학예면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없는데다 증면하기 어려운 제작 환경 탓에 제한적으로 운용되기는 하였으나, 도입 초기에는 '일요부록'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924년 중반까지도 일요부록에서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1924년 11월부터는 학예면 내 문예란의 확대와 함께 점차 주변화되어 1925년 이후부터는 학예면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인과 가정'란의 운용과 위상변화는, 조선인에 대한 선전이 주가 되는 총독부 기관지에서 학예면이 차지하는 주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 관련 이슈가 학예면을 구성하는 주제들의 다양성과 주제 간의 위상 변화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들은 1920년대 초·중반 식민지 조선의 '여성' 혹은 '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제 유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애/결혼/가족 관련 기사들은 전통적인 조선의 가정과 그 안의 가족 관계를 개량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소위 서구적 핵가족 모델과 같은 부부 중심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강요하는 낡은 결혼 제도와 평등하지 못한 부부 관계를 비판했지만, '부인과 가정'란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는 '효'를 억제하고 '충'을 강조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길러내 고자 했던 총독부의 시선이 또한 투영되어 있었다. 한편, '부인'으로 대표된 여성은 그 역할을 '가정' 내로 제한받고, 이 '여자 특유의 왕국'을 잘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닌 존재로 호명되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가정 내 위생, 자녀의 양육이 이들의 주된 역할로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식민지 교육, 즉 현모양처를 양성해내는 제한적 교육이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늘어나

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해진 당시의 상황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진 것으로 총독부 기관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새롭게 조선어 일간지에 등장한 부인란은 이전에는 민족 단위로 호명되던 여성을 '여성', '부인' 등의 독립된 주체로 표상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을 움아매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비판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 것을 주장했지만 여기에서 호명된 여성은 '가정'이라는 틀 내에서 가정을 잘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한적 주체를 넘어서지 못했다.

본 연구는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기사들을 수집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양쪽을 통해 그 의미와 특성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신문에 게재된, 국내 최초의 부인란을 분석함으로써 도입배경 및 운용, 기사 유형과 주요 기사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여성에 대한 시선을 읽어볼 수 있었지만, 제한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여타 다른 여성잡지나 신문, 일본 내 여성란 연구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은 한계로 남는다. 특히, 당시의 잡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문에서 일부 언급되기는 했으나 매체별 제작환경과 기사내용의 차이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연구대상 신문을 다른 민간지로 확대하여 현재는 빈약한 신문매체 대상 여성 연구를 확충한 후 매체별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보충해나가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곽정인 (2009). 1920년대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를 통해 본 어머니 역할 내용분석: 조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권 5호, 79-94.
- 권유성 (2008). 1920년대 초기 <매일신보>의 근대시 게재 양상과 의미. <한국사학연구>, 23호, 93-131.
- 김경남 (2008). 신여성 잡지를 통해 본 1920년대 여성관의 변화와 여자 교육. <우리말글>, 43호, 237-259.
- 김경일 (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 김미영 (2004a). 1920년대 계몽적 남성 지식인의 여성 담론 연구: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관련 사설 및 연재기사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4집, 277-311.
- 김미영 (2004b). 일제하 <조선일보>의 '가명부인란'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호, 221-278.
- 김봉희 (1999).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서울: 소명출판.
- 김숙현 (1973). <한국신문에 실린 여성에 관한 기사분석 연구: 1920년대와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파주: 창작과 비평.
- 김혜경 · 정진성 (2001). "핵가족"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식민지 시기 새로운 가족개념의 도입과 변형. <한국사회학>, 35집, 4호, 213-244.
- 대한언론인회 (편) (1992). <한국언론인물사화>. 서울: 대한언론인회.
- <매일신보> (영인본).
- 박찬승 (2007). 1910년대 독일유학생의 사상적 동향. <한일공동연구총서 12> (151-194쪽). 서울: 아연출판부.
- 박현호 (2005). 192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29호, 35-78.
- 서울신문100년사 편찬위원회 (2004). <서울신문 100년사>. 서울: 서울신문사.
- 수요역사연구회 (편) (2002). <식민지조선과 매일신보> 서울: 신서원.
- 윤금선 (2009). 근현대 여성 독서 연구. <국어교육연구>, 45집, 149-194.
- 이민희 (2012). 일제강점기 제국일본 문학의 변안 양상: 192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 汝等の背後로서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93, 151-165.
- 이배용 (2003). 일제시기 신여성의 역사적 성격. 문옥표 외 (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21-50쪽). 서울: 청년사.
- 이희정 (2011a)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과정과 제도화 양상. <현대문학연구>, 33호,

97-113.

이희정 (2011b).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1): 전반기 연재소설의 전개과정
을 중심으로. <어문학>, 112호, 351-379.

이희정 (2007). 1920년대 초기의 <매일신보>와 흥난파 문학. <어문학>, 98호, 239-268.

임희숙 (2005). 일제 강점기 여성교육과 개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권 1호, 195-217.

정지영 (2008)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30년대 동아일보 사건 기사를 중심으로. <여
성과 역사>, 9호, 79-119.

정진석 (2005). <언론조선총독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이숙 (2015). 1960-70년대 한국신문의 상업화와 여성가정란의 젠더 정치.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87-323.

홍양희 (2013).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의 "부인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의
사학>, 22권 2호, 579-616.

川嶋保良 (1996). <婦人・家庭欄こと始め>. 東京: 青蛙房.

Voss, K. W. (2006). The Penney-Missouri Awards. *Journalism History*, 32(1), 43-50.

Baldasty, G. L. (1992). *The Commercialization of news in the nineteenth Centu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Cater, C., Steiner, L., & Fleming, C. (2004). *Women and journalism*. London, UK: Routledge.

Freeman, L. (2000). *Closing the shop: Information cartels and Japan's mass media*. 변정수 (역)
(2004). <일본 미디어의 정보 카르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Harp, D. (2002). *Desperately seeking readers: U.S. newspapers and the creation, termination,
and reintroduction of womens' pag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최초 투고일 2016년 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2월 1일

Abstract

The Public Gaze on Women in Colonial Korea in the Early 1920s

Focused on the Section of 'Wives and Home'
in *Maeil Sinbo*

Min Ju Lee

Assistant Professor, Far East University

Yisook Choi

Lecture Professor, Dong-A University

Majority of studies on gender and women's life in colonial Korea were conducted by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ocial history or women's history. These studies have dealt with magazines publish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not newspapers. This study examines the early era of women's pages in *Maeil Sinbo* (每日申報), the organ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order to grasp the social background of women's pages and issues on women formed to define women in colonial Korea.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all articles on women's pages in *Maeil Sinbo* from November 1923, the first women's page was published, to December 1924, and analyzed types, themes and text of the articles for exploring traits and meanings of women's pages in colonial Korea.

Keywords: women's pages, *Maeil Sinbo* (每日申報), Wives and Home, New Women, colonial Korea.